

##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별 인식영향요소와 매력선호도에 대한 한중일 남녀 비교

백 경 진 · 김 영 인<sup>+</sup>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연구원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sup>+</sup>

### A Cross-Cultural Study of Facial Awareness, Influential Factors, and Attractiveness Preferences Among Korean, Japanese, and Chinese Men and Women Evaluating Korean Women by Facial Type

Kyoung-Jin Baek · Young-In Kim<sup>+</sup>

Researcher, Symbiotic Life-TE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sup>+</sup>

(received date: 2014. 9. 11, revised date: 2014. 11. 14, accepted date: 2014. 12. 20)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ross-cultural featur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y comparing differences in facial awareness, attractiveness preferences, and consideration of facial parts in a group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men and women as they evaluated the faces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male and femal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Frequency analysis, ANOVA, Duncan test, factorial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MANOVA were carried out using SPS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aces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were evaluated by Korean, Chinese, and Japanese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s 'Youthfulness', 'Classiness', 'Friendliness' and 'Activeness'. Differences in facial image awareness were observed depending on nationality and gender. Korean participants were found to place importance on overall morphological factors; The Japanese focused on the eyes; and the Chinese on the skin color. Women of all nationalities showed, on average, a higher awareness of facial parts than men.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cial attractiveness preferences were found based on nationality or gender,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how the participants evaluated faces for attractiveness, showing that reasons for preferences may vary even if the preferences are the same.

Key words: attractive preference(매력선호도), awareness influential factor(얼굴인식영향요소), cross-cultural study(비교문화연구), facial image type(얼굴이미지 유형)

## I. 서론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 짓는 외형적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얼굴이미지이다. 얼굴이미지는 “얼굴 부위의 형태와 요소들이 위치한 비율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같은 얼굴이라도 지각자가 가지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구조 등의 특성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인지되기도 한다”(Lee & Park, p. 119). 특히 얼굴에는 문화적인 코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Rapaille, 2007, p. 7)인 문화코드는 각자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경험한 문화를 통해 획득되므로 문화가 다르면 얼굴이 전달하는 코드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Rapaille, 2007). 각 나라별, 인종별로 느끼는 매력적인 얼굴에는 차이가 있으며, 얼굴이미지가 중요한 인기 스타들에 대한 선호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스타들이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한류스타에는 차이가 있어 문화권별로 선호하는 얼굴의 감성적 이미지와 형태적 특징이 다를 수 있다.

얼굴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문화권에 따른 얼굴묘사형식을 언어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서양인이 사용한 형용사 어휘는 ‘indecisive’, ‘pugnacious’, ‘ruthless’, ‘aggressive’ 등으로 얼굴의 턱과 성격을 관계하여 인물의 생명력, 인품, 의지력, 결단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부위로서 사용되었다. 반면 일본인의 턱의 묘사는 턱이 ‘패어 있다’, ‘길다’, ‘뽀어 있다’, ‘각저 있다’ 등으로 형태적이고 시각인 결모습을 묘사하고 있다(Suzuki, 2005). 이는 같은 얼굴부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나 가치관도 문화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매력에 관한 교차 문화적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Kim(2008)은 각 나라 연예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얼굴매력에 대한 한중일 비교를 한 결과, 한국연예인은 앳된 인상과 성숙한 인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일본 연예인은 앳된 인상이, 중국연예인은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이 많이 나타나 얼굴매력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Muraswa(2005)의 책에 언급된 한중일 미모 비

교 연구에 대한 결과에서도 일본인은 화려하고 외향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끼며 한국인과 중국인은 화려하면서 섹시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얼굴이미지의 평가나 매력선호도는 성별의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지각하는 심리적 요인에 성별의 차이가 크며, 특히 남녀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세부 요소들이 평가자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Park & Suh, 2009). 얼굴의 특정부위가 매력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에서도 남성에게 비해 여성들이 매력지각에 있어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Kim, 2009).

이와 같이 얼굴에 대한 미의식은 한 시대의 사회나 문화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얼굴의 역사는 사회·문화의 역사이기도 하므로 현재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에 대한 지각과 매력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 사회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얼굴 이미지에 대한 문화권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얼굴이미지나 얼굴매력에 관한 선행 연구는 특정한 문화권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얼굴이미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권별 사회문화적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에 대한 한중일 문화권별 남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하고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와 매력선호도를 분석하여 얼굴이미지에 대한 한중일 간의 교차 문화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 II. 얼굴이미지 인식영향요소와 얼굴매력도

### 1. 얼굴이미지 인식영향요소

얼굴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전달되는 생김새의 복잡한 자극은 얼굴 요소의 형태나 배열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 얼굴의 인상과 형태적 특징이 상관성을 가지며, 유사한 얼굴 형태에서 동일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

다. 그러므로 특정한 얼굴의 형태적 특징은 특정한 얼굴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erry & McArthur(1985)에 의하면 성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인상을 평가한 결과, 얼굴형이 각이진 남성은 더 남성적으로 보이거나 덜 따뜻하고 덜 정직하게 지각되며, 크고 둥근 눈, 높은 눈과 작은 턱을 지니면 더 동안인 것으로 지각된다. 이런 특징들은 순진성, 정직성, 친절성, 온화성의 인상평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988)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턱의 형태, 그리고 세 가지의 눈꼬리 형태에 따른 지배성과 독립성 및 사회성 차원에서의 성격을 알아본 결과, 턱의 형태가 각진 형이 둥근 형보다 더 지배적이고 독립적이며, 불친절하고 인정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눈꼬리의 형태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 가장 지배적이고 독립적이며 인정이 없고 불친절한 것으로 지각되고, 눈꼬리가 아래로 처진 형일 때 가장 복종적이고 의존적이며, 인정이 많고 친절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턱의 형태와 눈꼬리의 형태가 상호작용하여 성격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상 판단에서 턱의 형태보다는 눈꼬리의 형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Ham, & Cho(1989)은 20대 한국인의 얼굴을 남성적 남자, 여성적 남자, 남성적 여자, 여성적 여자의 4군으로 나누어 안면계측을 한 결과, 남성적인 남자는 얼굴이 크고 길며, 코가 넓고, 턱과 입이 크며, 여성적인 여자는 전체적으로 얼굴이 작고 둥글며 코가 좁고, 입과 턱이 작다고 하였다. 특히, 턱의 크기와 돌출정도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Kwon(1999)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얼굴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 항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여성스러운' 인상의 경우 인상 형성에 있어 얼굴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착한' 인상의 경우 둥글거나 계란형의 얼굴이 사각형이나 긴 얼굴형보다 더 '착한'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지성적인 인상은 계란형>둥근형, 긴 얼굴형>사각형 순으로 나타났고 '선량한', '따뜻한', '마음씨 착한' 인상 항목에서는 둥근형, 계란형으로, '우

아한', '지성적인' 인상의 경우에는 계란형, 긴 형>둥근형>사각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얼굴이미지를 결정하는 얼굴의 형태적 요소는 성별, 인종 등의 평가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Lee(1989)는 동안을 결정하는 얼굴 특징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경우 턱 넓이와 앞머리 넓이가 영향을 미쳐 턱이 좁을수록 동안으로, 이마가 넓을수록 나이든 성인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눈 크기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한국인의 얼굴에서 동안성을 결정하는 인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흑인의 동안성 결정인자는 눈 크기와 눈썹인자로 나타나 동안성의 인상 판단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자극인물의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Park & Suh(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 남녀 사진에 대하여 전반적 아름다움을 평가한 결과, 아름다운 얼굴을 인지하게 하는 물리적,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력 차이로 인하여 아름다움 지각에서의 성별 차이가 있으며, 남녀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세부 요소들에서도 평가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Kim(2009)은 눈동자 크기가 매력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큰 눈동자를 더 매력적으로 판단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매력지각에 외모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렇듯 얼굴의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평가자의 성별, 인종 등의 상태에 따라 지각된 결과가 다르므로 얼굴이미지를 결정하는 얼굴부위도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같은 얼굴이미지라도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얼굴부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에 대한 한중일의 지각 차이와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를 비교하고자 한다.

## 2. 얼굴매력도

얼굴매력에 대한 평가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성이 있으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Cunninham, Roberts, Barbee, Duren & Wu, 1995; Langlois & Roggman,

1990: Rhodes et al., 2001), 평가자의 성별, 인종,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Wheeler & Kim, 1997). Chou(2007)는 한중일은 외모, 문화, 사고방식 등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미모 관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 중국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인은 얼굴을 평가할 때 정면얼굴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한국과 중국인은 입체적인 면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일본인은 좌뇌우세형이 많아 얼굴을 개념적으로 판단하며 한국과 중국인은 우뇌우세형이 많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중일의 이상적 미에 대한 차이는 언어적 개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세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말의 '아름답다'는 "알음 즉 앎, 아름다움은 지적인 것과 관련 있다"와 '나답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아름답다'의 15세기 표기는 '아름답다'이며, '아름'의 뜻은 '나(我)'이므로 아름답다는 말은 '나답다'라는 본뜻을 지니게 된다. '나답다'라는 것은 '내 가치관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 '마음에 들다'->'보기 좋다'라는 뜻으로 발전되었다(Park, 2007). 여기서 볼 때 한국인은 맹한 이미지의 얼굴보다는 지적인 이미지의 얼굴에서 더 매력을 느끼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얼굴을 더 이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에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한자는 '미(美)'이며, 어원에 대한 여러 견해 중 하나는 羊(양 양)자 밑에 火(불 화)자가 합성으로 양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옛날에 양은 제사의 희생물로 양이 크다는 것은 곧 희생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뜻했다. '義(의)자'를 보면 나(我)위에 양을 얹어놓은 모양인데, 옳은 일을 하려면 자진하여 희생을 짊어져야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만든 글자라는 것이다(Kim, 2010). 이러한 중국인들의 미의식은 중국의 역사서 속에 등장하는 미인들의 공통점에서도 나타난다. 현재까지도 사대미인(四大美人)으로 칭송받는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는 외적인 미모가 아닌 역사적 희생의 산물로 비극적 생을 살다간 여인들이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심리구조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성공한 영웅을 칭송하기보다는

비운의 주인공을 동정하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Kim, 2010).

일본어에서는 '우쓰쿠시이(美しい)'라는 말 외에 '키레이나(きれいな)'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며 '사랑, 애착 등의 숙지감정', '깨끗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흔히 아름다운 것의 반대는 추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인의 미의식에서는 '더럽혀진 것', '촌스러운 것', '시끄러운 것', '화려한 것', '지나치게 완전한 것', '약한 것',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얕고 열은 것' 등도 아름다운 것의 반대어가 될 수 있다. 반면, '깨끗한 것', '세련된 것', '적막한 것', '수수한 것', '불완전한 것', '강한 것', '감동을 주는 것', '깊고 진한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 중 청결함은 일본인의 독특한 사상적 특징 중 하나로 일본인에게는 '나쁜 것'과 더러운 것'은 동의어이다(Nagao, 2002). 즉 깨끗한 상태를 선한 상태로 보며 이는 일본인이 잘 다듬어진 눈썹과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인들은 체모가 많으면 털이 만들어 내는 공간에 냄새가 들어찬다고 느끼기 때문에 눈썹 뿐 만 아니라 팔, 가슴 등 전신에 탈모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다(Muraswa, 2010).

아름다움에 대한 어원을 살펴본 결과, 아름다움의 의미는 한중일 세 나라간의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는 실제 선호하는 이상적 얼굴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Kim(2008)의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연예인 얼굴의 물리적 특징을 분석하여 문화권별 얼굴매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과 중국의 여자연예인 얼굴특징은 성숙한 인상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주로 앳된 인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안'의 인상특징은 일본과 중국에서 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여자연예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얼굴매력은 동시대의 이상적 미와 관련이 있으며, 이상적 아름다움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 되므로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평가는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에 대한 교차 문화적 비교를 위한 연구로 Baek & Kim(2014)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과 얼굴이미지 평가도구 역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Table 9>에 제시된 12개의 자극물은 성형에 의한 얼굴 형태의 변화가 없는 20-24세의 한국여성의 얼굴을 수집하여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얼굴이미지 평가를 위한 형용사는 얼굴, 메이크업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서적에서 얼굴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집하였으며 이후 형용사 적절성 평가를 위해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우아한', '청순한', '도시적인', '지적인', '발랄한', '사랑스러운', '귀여운', '어려보이는', '활동적인', '강한', '남성적인', '개성 있는',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편안한', '친근한', '자연스러운', '섬세한', '섹시한'의 총 18개의 형용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은 한중일의 20대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실시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

는 한국문화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각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 220명, 중국 195명, 일본 191명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각 나라별 설문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기간은 한국은 2012년 5월 10일부터 2012년 5월 20일, 중국은 2013년 5월1일부터 2013년9월31일, 일본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이며 한국과 일본은 설문조사원을 통해 진행되었고 중국은 온라인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ANOVA, Duncan-test, MANOVA, 요인분석, Cronbach'a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별 인식영향요소에 대한 한중일 남녀의 지각 차이 비교

#### 1.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화

20대 한국 여성의 얼굴이미지를 유형화하기 위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			N	%
Korea (n = 220)	Sex	male	130	60%
		female	90	40%
	Age	20-24	208	94.5%
		25-29	12	5.5%
		Mean	21.2	
China (n = 195)	Sex	male	96	49.0%
		female	99	51.0%
	Age	20-24	147	75.4%
		25-29	48	24.6%
		Mean	23.2	
Japan (n = 191)	Sex	male	113	59.2%
		female	78	40.8%
	Age	20-24	115	60.2%
		25-29	76	39.8%
		Mean	24.7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  신뢰도 검증법을 실행하였다. 얼굴이미지의 차원은 얼굴이미지를 묻는 18문항을 요인분석 하여 고유치 1의 기준과 Scree-test에 의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은 편안한, 자연스러운, 친근한, 부드러운으로 요인 2는 어려보이는, 귀여운, 청순한, 사랑스러운, 발랄한으로, 요인 3은 도시적인, 지적인, 우아한, 섹시한, 여성스러운으로, 요인 4는 활동적인, 강한, 남성적인, 개성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명칭은 다른 요인들과 차이를 보이며 요인 부하량 값이 높고 연상이 잘 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요인 1은 '친근성', 요인 2는 '동안성', 요인 3은 '세련성', 요인 4는 '활동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결과는 Baek & Kim(2014)의 연구에서 20대 한국 남녀대학생이 20대 한국 여성의 얼굴이미지를 평가하여 나타난 유형과 같은 결과로 한중일의 20대들은 유사한 미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친근성이(고유치 : 3.09, 설명변량 : 17.15%)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동안성(고유치 : 3.06, 설명변량 : 17.01%), 세련성(고유치 : 3.02, 설명변량 : 16.77%), 활동성(고유치 : 2.71, 설명변량 : 15.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65.98%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친근성이 전체분산의 17.15%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 결과 네 가지 요인 모두 0.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한중일의 지각 차이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한중일 세 나라간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친근성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일본이 높게 나타났고 중국이 낮게 나타났으며, 동안성에서는 일본의 평균이 가장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of Korean Women's Facial Image

Factor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alpha$
Friendliness	comfortable	.852	3.09	17.15%	0.87
	natural	.814			
	intimate	.797			
	good-natured	.695			
Youthfulness	fresh-faced	.780	3.06	17.01%	0.82
	cute	.766			
	innocent	.687			
	adorable	.630			
	cheerful	.575			
Classiness	urbane	.788	3.02	16.77%	0.82
	intelligent	.778			
	elegant	.775			
	sexy	.695			
	feminine	.548			
Activeness	active	.799	2.71	15.06%	0.80
	tough	.783			
	manly	.751			
	characterful	.727			

<Table 3> The Difference of Awareness according to Facial Image Types in Korea, China and Japan

nation		Korea (n=220)	China (n=195)	Japan (n=191)	F-value
Friendliness	Mean	<b>2.75</b>	2.56	<b>2.77</b>	45.283***
	Duncan test	A	B	A	
Youthfulness	Mean	2.46	2.54	<b>2.66</b>	41.141***
	Duncan test	C	B	A	
Classiness	Mean	2.47	2.53	<b>2.75</b>	89.128***
	Duncan test	C	B	A	
Activeness	Mean	2.89	2.46	<b>3.08</b>	306.713***
	Duncan test	B	C	A	

\*p<0.05, \*\*p<0.01, \*\*\*p<0.001

a, b, c: Group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 test were noted with different letters.

높고 한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련성과 활동성은 일본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평가결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친근성 유형에서만 평균이 높고 동안성, 세련성에서는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동안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나 동안형 얼굴을 평가할 때 중국과 일본에 비해 더 예민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의 평가를 살펴보면, 중국은 활동성을 제외한 친근성, 동안성, 세련성 유형에서의 평균이 세 나라 중 두 번째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모든 얼굴 이미지 유형에서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한국여성을 더 어리고 세련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활동성 이미지는 중국과 일본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한국

인의 얼굴에 대해 중국인은 활동성이 낮은 얼굴로 인식하며 일본인은 활동성이 높은 얼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3.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한중일 남녀의 지각 차이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한중일 남녀의 이미지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세 나라 모두 4가지 얼굴이미지 유형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성을 제외한 친근성, 동안성, 세련성 유형에서 한중일 모두 여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성 유형에서는 세 나라 모두 남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Table 4> The Difference of Awareness according to Facial Image Types in Korea, China and Japan 's Male and Female

facial image type	Korea			China			Japan		
	male (n=130)	female (n=90)	t	male (n=96)	female (n=99)	t	male (n=113)	female (n=78)	t
Friendliness	2.7	<b>2.88</b>	-5.193***	2.56	2.56	0.119	2.70	<b>2.83</b>	-3.713***
Youthfulness	2.43	<b>2.51</b>	-2.503*	2.57	2.51	1.964	2.61	<b>2.72</b>	-3.538***
Classiness	2.4	<b>2.58</b>	-5.553***	2.56	2.5	1.897	2.70	<b>2.82</b>	-4.661***
Activeness	<b>2.93</b>	2.84	2.437*	<b>2.52</b>	2.41	3.299**	<b>3.10</b>	3.04	1.580***

\*p<0.05, \*\*p<0.01, \*\*\*p<0.001

여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강하거나 남성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얼굴이미지 인식영향요소에 대한 한중일 비교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에 대한 한중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세 나라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얼굴형, 눈, 코, 입, 턱 부위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피부색에서만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눈썹과 눈 부위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피부색을 제외한 형태적 요소에 대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는 한국인은 전반적인 얼굴 형태에 관심이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인들이 성형시술의 빈도가 높은 것에 대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얼굴형, 이마, 턱 등 얼굴의 외곽선을 형성하는 얼굴의 평균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눈, 코, 입과 같은 세부부위를 고치는 과거의 성형 트렌드와 달리 입체적인 얼굴형과 부드러운 얼굴선을 위한 안면윤곽시술이 유행하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피부색이 얼굴지각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나타나 한국, 일본과는 달리 얼굴의 형태보다는 피부색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남쪽에 거주하는 남중국인으로 이들은 베트남인들이나 필리핀인들과 유사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 티베트인이나 네팔인과 유사한 북중국인에 비해 피부색이 어둡다(Diamond, 2005). 예로부터 중국은 미인의 조건으로 설부화용(雪膚花容), 만리호치(曼理皓齒)와 같은 한자성어에서 나타나듯 하얗고 고운 피부색을 중요시 하였는데

<Table 5> The Difference of Awareness Influential Factor in Korea, China and Japan

facial part	nation	Korea (n = 220)	China (n = 195)	Japan (n = 191)	F-value
face shape	Mean	<b>3.62</b>	3.05	3.41	202.840***
	Duncan test	<b>A</b>	C	B	
forehead	Mean	<b>3.23</b>	2.84	3.02	91.799***
	Duncan test	<b>A</b>	C	B	
eyebrow	Mean	3.38	2.92	<b>3.44</b>	142.185***
	Duncan test	B	C	<b>A</b>	
eye	Mean	<b>3.92</b>	3.17	<b>3.92</b>	439.531***
	Duncan test	<b>A</b>	B	<b>A</b>	
nose	Mean	<b>3.25</b>	3.01	3.10	45.154***
	Duncan test	<b>A</b>	C	B	
mouth	Mean	<b>3.43</b>	3.06	3.25	89.990***
	Duncan test	<b>A</b>	C	B	
chin	Mean	<b>3.26</b>	2.90	3.08	74.289***
	Duncan test	<b>A</b>	C	B	
skin color	Mean	2.72	<b>2.94</b>	2.79	22.247***
	Duncan test	C	<b>A</b>	B	

\* $p < 0.05$ , \*\* $p < 0.01$ , \*\*\* $p < 0.001$

a, b, c: Group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 test were noted with different letters.



이와 같은 중국의 미의식의 영향으로 북중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어두운 남중국인들이 얼굴 이미지 평가 시 피부색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중국인이 얼굴이미지 평가 시 피부색을 중요시 하는 특성은 형태보다는 촉감, 질감 등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남방계의 기질적 특성과 남중국인의 피부색 특징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눈과 눈썹의 영향이 높는데 이는 일본인이 청결함을 중요시 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청결,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얼굴에서도 깨끗해야하는 부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 중 눈썹은 잔털을 다듬어 깨끗하게 하는 부위로 평소 일본인이 남녀를 불문하고 눈썹을 다듬는 경향이 높아 얼굴이미지 평가 시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부색을 제외한 얼굴의 형태와 관련된 얼굴부위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중일 모두 이마부위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설문대상이 20대라는 점과 관련이 있는데 얼굴이미지 평가 시 나이가 어릴수록 이마부위에 큰 관심이 없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Chou, 1999).

### 5. 얼굴이미지 인식영향요소에 대한 한중일 남녀 비교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에 대한 한중일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중일 각각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한국은 눈썹, 눈, 입, 피부색에서, 중국은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피부색에서, 일본은 눈썹, 눈, 코, 입, 턱, 피부색으로 한국은 4부위, 중국은 7부위, 일본은 6부위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얼굴부위의 개수는 한국이 가장 적었으며 중국은 얼굴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 한국의 남성과 여성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얼굴부위의 평균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은 여성의 평균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는 피부색을 제외한 눈썹, 눈, 입 부위에서 여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한중일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얼굴이미지 평가 시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얼굴형은 한중일 모두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평균값은 한국은 눈, 얼굴형, 중국은 눈, 얼굴형과 입, 일본은 눈, 눈썹과 얼굴형의 순으로 나타나 얼굴이미지 평가 시 한중일 남녀 모두가 중요시하는 얼굴부위임을 알 수 있다.

<Table 6> The Difference of Awareness Influential Factor in Korea, China and Japan's Male and Female

nation facial part	Korea			China			Japan		
	male (n=130)	female (n=90)	t	male (n=96)	female (n=99)	t	male (n=113)	female (n=78)	t
face shape	3.63	3.61	0.544	3.03	3.07	-1.028	3.38	3.45	-1.726
forehead	3.20	3.27	-1.876	2.78	<b>2.90</b>	-3.227**	3.02	3.03	-0.264
eyebrow	3.29	<b>3.51</b>	-5.843***	2.89	<b>2.96</b>	-1.977*	3.39	<b>3.52</b>	-3.346**
eye	3.89	<b>3.96</b>	-2.096*	3.08	<b>3.26</b>	-4.163***	3.85	<b>4.01</b>	-4.456***
nose	3.26	3.24	0.708	2.97	<b>3.06</b>	-2.278*	3.04	<b>3.20</b>	-4.695***
mouth	3.36	<b>3.54</b>	-4.774***	2.97	<b>3.15</b>	-4.409***	3.17	<b>3.38</b>	-5.440***
chin	3.25	3.27	-0.750	2.85	<b>2.96</b>	-2.768**	3.03	<b>3.14</b>	-2.865**
skin color	<b>2.77</b>	2.64	3.222**	2.87	<b>3.00</b>	-3.210**	2.72	<b>2.90</b>	-5.345***

\*p<0.05, \*\*p<0.01, \*\*\*p<0.001

## V. 얼굴 매력선호도와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지각차이 비교

### 1. 얼굴매력선호도 대한 한중일 비교

한국여성의 얼굴 중 가장 매력 있는 얼굴에 대한 한중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한국은 1번, 5번, 6번, 10번, 2번의 자극물이 상위 5위까지 포함되었으며 5위까지의 누적 퍼센트는 88.9%로 나타났다. 중국은 1번, 5번, 6번, 9번, 2번의 자극물이 상위 5위까지 포함되었으며 5위까지의 누적 퍼센트는 81.6%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번, 6번, 5번, 9번, 2번의 자극물이 상위 5위까지 포함되었으며 5위까지의 누적 퍼센트는 88.4%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한중일 세 나라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번과 11번의 얼굴에 대해서는 한중일 간의 시각이 차이가 있어 각 문화권에서 선호하는 특정얼굴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얼굴매력 선호도에 대한 한중일 남녀 비교

한국여성의 얼굴 중 가장 매력 있는 얼굴에 대한 한중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성별에 따라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남녀의 빈도순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모두 1번, 2번, 5번, 6번, 9번 자극물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 약간의 순위변동만 나타났다. 하위순위에 언급된 얼굴 이미지를 살펴보면, 8번, 12번, 10번 얼굴이미지에 대해서는 나라별 차이에서와 같이 남녀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한중일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현재 한중일 20대 남녀는 매력적인 얼굴에 대해 미의식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특정한 얼굴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매력 있는 얼굴에 대한 한중일 지각 차이 비교

매력 있는 얼굴에 대한 한중일의 지각 차이는 얼굴이미지 하위요인간의 나라별 차이 분석을 위한

<Table 7> The Difference of Attractive Preference in Korea, China and Japan

rating	nation	Korea		China		Japan	
		Stimulus number	N(%)	Stimulus number	N(%)	Stimulus number	N(%)
1		1	70(33.7)	1	44(23.8)	1	72(38.1)
2		5	63(30.3)	5	33(17.8)	6	33(17.5)
3		6	25(12.0)	6	33(17.8)	5	31(16.4)
4		10	18(8.7)	9	26(14.1)	9	21(11.1)
5		2	9(4.3)	2	15(8.1)	2	10(5.3)
6		9	5(2.4)	3	11(5.9)	3	7(3.7)
7		11	4(1.9)	4	11(5.9)	11	6(3.2)
8		3	3(1.4)	10	5(2.7)	10	4(2.1)
9		4	3(1.4)	8	3(1.6)	7	2(1.1)
10		7	3(1.4)	12	2(1.1)	12	2(1.1)
11		12	3(1.4)	7	1(0.5)	4	1(0.5)
12		8	2(1.0)	11	1(0.5)	8	0(0.0)

<Table 8> The Difference of Attractive Preference in Korea, China and Japan's Male and Female

Korea				China				Japan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number	N (%)	number	N (%)	number	N (%)	number	N (%)	number	N (%)	number	N (%)
1	41 (33.6)	1	29 (33.7)	1	24 (27.0)	5	21 (22.1)	1	42 (37.8)	1	30 (38.5)
5	40 (32.8)	5	23 (26.7)	6	13 (14.6)	6	20 (21.1)	5	19 (17.1)	6	14 (17.9)
6	12 (9.8)	6	13 (15.1)	5	12 (13.5)	1	19 (20.0)	6	19 (17.1)	5	12 (15.4)
10	12 (9.8)	2	6 (7.0)	2	10 (11.2)	9	16 (16.8)	9	9 (8.1)	9	12 (15.4)
9	5 (4.1)	10	6 (7.0)	9	10 (11.2)	2	5 (5.3)	2	6 (5.4)	2	4 (5.1)
2	3 (2.5)	11	3 (3.5)	4	8 (9.0)	3	4 (4.2)	3	4 (3.6)	3	3 (3.8)
7	3 (2.5)	3	2 (2.3)	3	7 (7.9)	4	3 (3.2)	10	4 (3.6)	11	3 (3.8)
8	2 (1.6)	4	2 (2.3)	10	4 (4.5)	8	3 (3.2)	11	3 (2.7)	4	0 (0.0)
3	1 (0.8)	12	2 (2.3)	7	1 (1.1)	12	2 (2.1)	7	2 (1.8)	7	0 (0.0)
4	1 (0.8)	7	0 (0.0)	8	0 (0.0)	10	1 (1.1)	12	2 (1.8)	8	0 (0.0)
11	1 (0.8)	8	0 (0.0)	11	0 (0.0)	11	1 (1.1)	4	1 (0.9)	10	0 (0.0)
12	1 (0.8)	9	0 (0.0)	12	0 (0.0)	7	0 (0.0)	8	0 (0.0)	12	0 (0.0)

M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9>와 같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얼굴형태에 대해 비교적 같은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20대 대학생들이 얼굴에 대한 문화코드가 유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얼굴이미지 평가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결과와 50% 정도만의 일치도를 보여 아직 한국과 일본과는 얼굴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4가지의 얼굴이미지 유형 중 동안성, 친근성, 활동성에 대해서는 얼굴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었으나 세련성에서는 한국, 일본과 일치하게 나타나 세련된 얼굴이미지에 대해서는 한중일의 미의식













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의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상위 5순위 안에 포함된 얼굴이미지들이 특정한 이미지에 치우치지 않고 4가지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평균이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중일 모두 확실적인 이상미를 일률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세련미, 동안미, 친근미 등의 다양한 이상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이 연구는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에 대한 한

<Table 9> The Difference of Facial Image's Sub-factors in Korea, China and Japan

(measure : N)

Stimulus number	nation	Friendliness	Youthfulness	Classiness	Activeness	Hotellings
1	 Korea	2.65	2.28	2.87	<b>2.91</b>	88.176***
	China	<b>2.77</b>	2.35	2.62	2.34	35.549***
	Japan	2.65	2.97	3.01	<b>3.27</b>	45.119***
2	 Korea	<b>3.44</b>	3.16	2.03	2.04	38.447***
	China	2.81	<b>2.91</b>	2.51	1.91	26.909***
	Japan	<b>3.74</b>	2.16	2.43	2.07	110.343***
3	 Korea	2.55	2.12	2.28	<b>3.22</b>	43.515***
	China	<b>2.69</b>	2.60	2.52	2.36	23.040***
	Japan	2.62	2.91	2.74	<b>3.42</b>	95.972***
4	 Korea	2.33	1.88	1.94	<b>3.77</b>	50.034***
	China	2.32	2.28	2.07	<b>2.99</b>	29.511***
	Japan	2.54	2.53	2.19	<b>3.79</b>	69.919***
5	 Korea	2.93	2.98	<b>3.33</b>	2.58	43.375***
	China	2.60	2.79	<b>2.94</b>	2.29	24.386***
	Japan	2.56	2.95	<b>3.23</b>	3.07	71.725***
6	 Korea	<b>3.38</b>	3.08	2.50	2.27	39.707***
	China	2.80	<b>2.84</b>	2.70	2.31	27.206***
	Japan	<b>3.28</b>	3.11	2.74	2.51	73.129***
7	 Korea	<b>3.25</b>	2.47	2.23	2.72	38.676***
	China	2.52	2.45	<b>2.53</b>	2.43	25.063***
	Japan	<b>3.09</b>	2.35	2.38	2.66	47.550***
8	 Korea	2.03	1.78	1.76	<b>3.76</b>	44.077***
	China	2.13	2.13	2.10	<b>2.99</b>	19.699***
	Japan	2.14	2.38	2.13	<b>3.86</b>	61.015***
9	 Korea	2.58	2.33	<b>3.10</b>	2.93	45.752***
	China	2.78	2.64	<b>2.98</b>	2.44	28.670***
	Japan	2.68	2.88	<b>3.49</b>	3.02	69.748***
10	 Korea	3.13	<b>3.22</b>	2.54	2.35	44.222***
	China	2.48	<b>2.71</b>	2.49	2.36	21.168***
	Japan	<b>2.83</b>	2.82	2.61	2.52	52.141***
11	 Korea	<b>2.98</b>	2.36	2.45	2.76	38.465***
	China	<b>2.65</b>	2.50	2.61	2.33	22.892***
	Japan	<b>3.00</b>	2.66	2.61	2.92	68.514***
12	 Korea	1.98	1.93	2.45	<b>3.37</b>	38.542***
	China	2.08	2.13	2.30	<b>2.78</b>	22.244***
	Japan	1.84	2.26	2.35	<b>3.82</b>	55.238***

\* $p < .05$  \*\* $p < .01$  \*\*\* $p < .001$

중일 남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하고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와 매력선호도를 분석하여 얼굴이미지에 대한 한중일 간의 교차 문화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20대 남녀가 평가한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은 친근성, 동안성, 세련성, 활동성의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한중일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은 한국여성을 볼 때 한국인에 비해 더 어렵고 세련된 얼굴이미지로 평가하고 있어 얼굴이미지 지각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한중일 남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중일 모두 활동성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성 유형에서는 남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의 얼굴 평가 시 남성은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에 대한 한중일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인은 얼굴형을 제외한 모든 얼굴부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본인은 눈썹과 눈의 영향을, 중국인은 피부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굴이미지 평가 시 한국인은 전반적인 형태적 요소를, 일본인은 눈 부위를, 중국인은 형태보다는 피부색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이미지 평가 시 영향을 받는 얼굴부위에 대한 한중일 남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눈썹, 눈, 입, 피부색에서, 중국은 이마, 눈썹, 눈, 코, 입, 턱, 피부색에서, 일본은 눈썹, 눈, 코, 입, 턱, 피부색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중일 모두 대부분의 얼굴부위에서 여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얼굴이미지 평가 시 더 세심한 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얼굴매력선호도에 대한 나라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세 문화권 간의 이상적인 미에 대한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매력적인 얼굴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형태의 얼굴을 선호하더라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어 얼굴이미지가 여러 차원에서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얼굴이미지에 대한 지각과 얼굴매력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 문화권이나 성별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한 연구로서 현재 한중일 20대 남녀의 미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패션·뷰티산업에서 한류시장 진출 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ek, K. J. & Kim, Y. I. (2014). Facial image type classification and shape differences focus on 20's korean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3), 62-76.
- Berry, D. S. & McArthur, L. Z. (1985). Some components and consequences of a baby f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312-323.
- Chou, Y. J. (1999). *Face, face of Korean* [얼굴, 한국인의 낯], Seoul, Republic of Korea: Sakyejul Publishing Inc.
- Chou, Y. J. (2007). *The beauty* [미인], Seoul, Republic of Korea: Hainaim Publishing Inc.
- Diamond, J. (2005). *Guns germs and steel :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J. J.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Literature & Thought.
- Kim, B. J. (2009). Effects of pupil size on the perception of attraction: Gender differenc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for Woman*, 14(2), 199-218.
- Kim, C. G. (2010). What is the beautiful woman?. *The Journal of GamSung*, 143-174.
- Kim, S. J. (2008). The cross-cultural comparison of facial attractivenes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11(2), 271-283.
- Kwon, H. S. (1999). Impression formation based on facial shape 1. *The Journal of Design*, 7, 1229-1250.
- Lee, E. J. (1988). *Relationship between two characteristics of face and personality in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Lee, H. H. & Park, C. B. (1998). Focus on perceiver variables = Effect of clothing cues and perceiver variables on impression formation of female dressed in korean dress(Part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7, 119.

- Lee, S. Y. (1989).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youth and personality in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Muraswa, H. (2010). *The birth of beauty* (T. W. Song,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Numubooks.
- Nagao, T. (2002). *Forty stories on Japanese thought* (G. Y. Lyu,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Yemoon.
- Park, E. A. & Suh, H. S. (2009). Elements of beauty in male and femal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for Woman*, 14(4), 617-648.
- Park, J. S., Ham, K. S., & Cho, Y. J. (1989). An Anthropometric study on the young korean faces related to their facial impression. *Archives of Plastic Surgery*, 16(6), 920-925.
- Park, Y. S. (2007). *Korean nuance dictionary* [우리말 낱양스 사전]. Seoul, Republic of Korea: Bookload.
- Rapaille, C. (2007). *The culture code* (S. C.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WoongJin Thinkbig.
- Suzuki, D. (2005). *Words in context* (G. W.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Sowha Publishing Inc.
- Wheeler, L. & Kim, Y. M. (1997). What is beautiful is culturally good: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ptype has different content in collectiv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8), 795-800.